

윤 대통령 “민생 최우선...추석 성수품 물가 5% 낮출 것”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내수 경기 활성화 위해 뛰어아”
“수산물 과감·신속하게 지원...소비 촉진에 800억원 편성”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아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력 수출 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뿐 아니라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의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제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민생 현장 구성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동작구 노랑진수산물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 “오염수 표현, 어떤 명칭 바람직한지 검토”

“후쿠시마 파견 전문가 매일 보고서”

정부는 지난 31일 방류가 본격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어떤 용어가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각계 의견이 어떤지 분석해보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오늘, 내일 당장 용어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염수 용어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오염수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염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산업계에서는 이에 ‘오염’을

빼고 ‘처리수’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장은 지난 27일부터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의 활동에 대해선 “방류 초기이기 때문에 1주일 정도는 방류 과정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KINS 전문가들이 IAEA 전문가와 일일 베이스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 보고서도 매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완료한 뒤 원자로의 문을 실제로 닫는 ‘폐로’ 작업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박 차장은 “폐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본격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우리 정부 TF는 2021년도 해양 방류로 일본의 방침이 결정되고 그 이후 수립된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 계획대로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육사, 흥범도 흥상 외부 이전 결정...나머지는 교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자리는 빈 공간으로

육군사관학교 내 흥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흥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육사가 흥 장군 흥상은 외부로, 나머지 흥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사는 지난 31일 “흥범도 장군 흥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의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흥 장군 외 5위의 흥상은 육

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사의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는 흥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홍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흥상이 설치돼 있으며, 충

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근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장령의 흥상이 설치돼 있다.

2022~2023년 육사 요람은 충무관 앞 5인의 흥상을 ‘독립전쟁 영웅 5인 흥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독립군·광복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육군과 육사의 역사적 뿌리를 잇기 위해 2018년 3월 1일 생도 교육의 전당인 충무관 앞에 장병들이 사용한 실탄 5만발의 탄피 300kg을 녹여 설치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3%...2주새 5%p 하락

NBS 조사...부정평가 5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사이 5% 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5%p 떨어

졌고 부정 평가는 5%p 올랐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결단력이 있음’이 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움’ (6%),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 (5%) 등 순이었다.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 (21%)이 가장 많이 꼽혔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 (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 (12%)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5%,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3%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은 2%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5%p 상승했다.

양당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서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52%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5%로 조사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라는 응답이 74%로, ‘해롭지 않을 것’ (21%)을 크게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